



Chinese Toon,
Shaggy-barked Tree

참죽나무

- ▶ 과명 : 멸구슬나무과
- ▶ 학명 : *Cedrela sinensis* Juss
- ▶ 영명 : Chinese Toon, Shaggy-barked Tree
- ▶ 한명 : 眞僧木, 香椿樹
- ▶ 일명 : ちゃんちん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참죽나무 순을 “참죽”이라 하는데 대나무처럼 순을 먹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어떤 분들은 가죽나무의 반대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참죽나무의 새순과 가지에는 독특한 향기가 있으므로 중국에서는 향춘(香椿)이라 하며 일명 저향(樗香)이라고도 하는데 참죽을 먹는 풍속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 맹아력이 좋고 생장이 빠른 편이며 수명이 길데 우리나라에는 400여년 된 것도 있다. 변재는 좁으며 노란줄무늬가 있는 갈색이고, 심재는 홍색

줄무늬가 있는 갈색으로 심, 변재 구분이 뚜렷하고 연륜도 뚜렷하다. 산공재로 나무 같은 거칠고 독특한 광택이 있고 내후, 보존성이 높고 특히 습기에 강하며 절삭가공이 용이하고 표면 마무리도 용이하며 재면 광택이 있어 기구재, 악기재, 토목용재로도 쓰인다.

어려서 기억에 선달 그믐날이면 할머니를 따라 다니던 암자에 가면 과자처럼 파삭한 참죽나무 새순으로 만든 부각을 많이도 먹었던 기억이 있다.

1. 생태적 특성

참죽나무는 중국이 원산으로 중부이남 서해안을 따라 남해안까지 표고 100~600m 마을 주변에 식재하는 낙엽활엽큰키나무로 수고 20m, 직경 30~40cm에 달한다. 내한성이 약하여 중부내륙 지방에서는 생장이 불량하며 음지보다는 양지를 좋아하고 내건성이 약하여 토심이 깊고 비옥 적운한 곳에서만 양호한 생장을 한다. 바닷가에서 잘되며 도심지에서도 공해피해를 받지 않는다.

예전에는 마을의 울타리 변에 많은 참죽나무가 있었으나 70년대 새마을 운동 시 마을 정화사업으로 울타리를 불록 담으로 바꾸면서 그 수가 많이 줄었다.

최근 들어 참죽나무의 새순이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차츰 식재면적이 넓어지고 있다.

2. 형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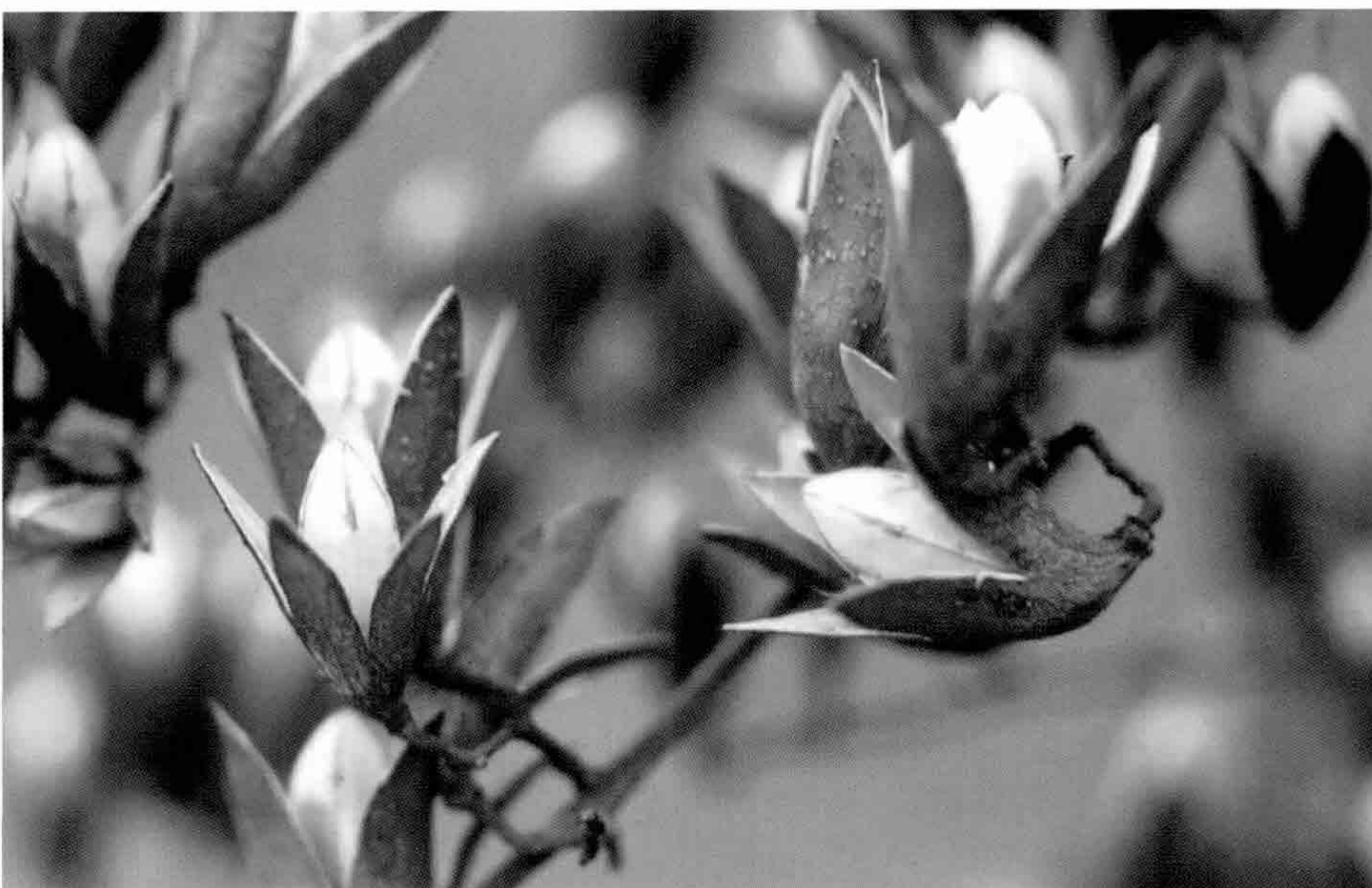
줄기는 곧게 크고, 가지가 적고 짧아서 좁은 수관을 만들며 수피는 암갈색이다. 잎은 어긋나고 기수1회우상복엽으로 길이 60cm이며 소엽은 10~20개이고 피침형 또는 장타원형으로 길이 8~15cm로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다. 원초화서는 길이 40cm이고 가지 끝에서 밑으로 처지며 꽃은 양성으로 6월에 피며 종 모양이고 백색으로 향기가 좋다. 열매는 9월에 익고 종자는 양쪽에 날개가 있으며 열매가 터짐과 동시에 날아간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그 동안은 조경수로 식재하였다기보다 식용 또는 약용으로, 목재의 품질이 좋아 가구재로도 사용하기 위하여 울타리 변에 한 두그루 식재하였으나 최근 들어 이 나무의 진가를 알아서인지 식재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6월에 피는 백색의 꽃이 향기가 좋고 나무의 수관폭이 좁아서 좁은 장소에 여러 그루를 식재한다. 특히나 이상기후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낙뢰를 막아 주는 나무로도 매우 적당하다. 다만 집단성이 떨어지고 많은 양분을 흡수하는 나무라서 매년 시비에 신경을 써야한다.

그 외 녹음수나 가로수로도 식재할 만 하다.



4. 번식법

종자와 포기나누기, 가지삽목, 뿌리삽목이 모두 가능한 수종이다. 종자번식은 9월에 씨가 익어서 터지기 직전에 따서 정선하여 보관하다가 이른 봄 2월쯤 물에 불려서 젖은 모래에 묻어서 휴면을 타파시킨 후 3월말~4월초에 파종한다.

무성번식은 늦가을에 뿌리를 캐내어 길이 5~7cm로 잘라 밭에 가매장한다. 봄 3~4월에 20cm 간격으로 10cm 깊이로 꺾은 뒤 5cm 두께로 흙을 덮으며 벚짚을 덮어 건조를 방지해 준다.

5. 그 밖의 용도

봄철 새순은 나물로 이용하며 수피와 뿌리껍질, 종자, 과실, 수액을 약용으로 사용한다. 🌿

